

2014년 시민역사강좌 <제 12기 가야학아카데미>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③

2014년 10월 8일(수), 오후 2~4시

청동기시대의 김해

배진성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부터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 교육/행사마당 → 교육자료실**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시민역사강좌 <제 12기 가야학아카데미>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③

청동기시대의 김해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621-900)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055)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핸드디자인 / 070-7380-0641

I. 청동기시대의 정의

* 세계사적 정의 : 문명, 도시혁명, 계급사회, 문자 등

* 한반도의 청동기시대는 무문토기의 출현, 청동기의 사용, 논농사의 본격적인 개시, 마제석검·마제석촉 등의 무기류와 마제석부·반월형석도 등의 도구류를 비롯한 각종 마제석기의 성행, 그리고 지석묘·석관묘와 같은 분묘의 출현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이 시대는 다른 시대에 비해 주거지, 분묘, 생산활동·의례행위와 관련된 각종의 유구와 유물이 다양하게 확인·조사되고 있어,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당시의 사회를 복원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신석기시대와는 달리 본격적인 농경생산활동에 의해 생산력이 향상되고 주거지 및 분묘에서도 차별성이 나타나면서, 이후 원사·역사시대를 여는 근본적인 토대가 형성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 연대 : 개시 연대는 최근 방사성탄소연대측정 및 이른 시기의 무문토기 등을 통해 대략 기원전 1500~1200년경으로 상향되고 있다. 종말 연대는 대략 기원전 400년경으로 추정되는데,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기원전 600~500년경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II. 토기, 석기, 청동기

* 무문토기 :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와는 달리 무문토기는 문자 그대로 문양이 없는 토기를 말하지만, 이른 시기의 토기에는 구연부에 약간의 문양이 있는 것이 많다. 무문토기는 기형과 문양에 따라 팽이형토기, 공렬문토기, 돌대문토기, 공귀리형토기, 미송리형토기, 가락동식토기, 역삼동식토기, 혼암리식토기, 송국리식토기 등으로 구분되며, 표면이 적색이나 흑색을 띠는

토기도 있다.

* 마제석기 : 석부로 대표되는 목공구, 무기(석검, 석촉), 농공구인 반월형석도, 어로구인 방추차,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석기 등 ⇒ 마연기법의 보편화, 형태의 정형화, 다양한 종류와 형태, 목공구의 발달, 의례용 석기의 발달, 옥(玉) 제품의 성행

* 청동기 : 한국의 청동기문화는 중국 동북지방 청동기문화의 유입으로 시작된다. 청동기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청동기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한반도에 걸쳐 분포하는 비파형동검이며, 이후 초기철기시대(삼한시대)가 되면 세형동검으로 변화한다.

Ⅲ. 주거와 마을, 그리고 농경

* 주거지의 형태와 규모를 보면 전기까지는 비교적 규모가 큰 평면 방형·세장방형·장방형주거지가 많고, 대부분 내부에 복수의 노지를 가지는 점에서 대가족체를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후기에는 방형과 장방형주거지도 있으나, 평면 원형의 주거지 중앙에 타원형수혈과 그 양쪽에 주혈이 있는 이른바 송국리형주거지로 대표된다. 전기에 비해 규모가 작아 한 가족 정도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며, 이러한 주거지가 몇 개 모여서 하나의 세대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 청동기시대의 마을은 하천 주변의 평지(진주 대평리 및 하남 미사리유적, 밭경작 중심의 농경생활), 산지(천안 백석동 및 여주 혼암리유적 등), 낮은 구릉지에 입지하며 구릉과 접하는 평지 또는 계곡에 논을 형성하여(울산 옥현유적 등) 생활하는 마을로 구분된다.

* 논 : 울산 옥현유적(1구획의 면적은 1평 미만·3평 전후의 소규모)

* 밭: 진주 대평리유적(오늘날의 밭과 유사)

IV. 무덤

* 고인돌: 탁자식(북방식), 바둑판식(남방식), 개석식, 구획묘(묘역식), 주구묘

* 고인돌의 축조 배경: 농경사회의 기념물, 공동체의 영역 설정을 위한 점유의 표시, 집단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사의 일환 등

* 토광묘, 석관묘, 옹관묘 등

V. 김해지역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

1. 주거지

* 김해 대청, 어방동, 율하리유적 등

* 전기의 (세)장방형주거지, 후기의 원형주거지



김해 구산동 지석묘

2. 무덤

내동 지석묘: 세형동검 출토

구산동 지석묘: 묘역시설, 초대형의 상석(上石)

율하리 석관묘: 묘역시설, 세형동검 출토

연지 지석묘: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2010년 발굴조사, 청동기 출토

신문리 석관묘: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2012년 발굴조사,

비파형동검 출토



김해 신문리 3호묘와 출토 동검

Note.

「제12기 가야학아카데미 -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 교육과정

- 일시 : 2014.9.24.~11.26. 매주 수, 오후 2시~4시(2시간)
- 장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주제	강사	소속	비고
1	9.24.	김해의 한글학자 눈피 허용	하치근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2	10.1.	김해의 불교	조원영	합천박물관 학예연구사	
3	10.8.	청동기시대의 김해	배진성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4	10.15.	낙동강과 김해의 역사지리	김덕현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5	10.22.	<답사> 김해문화유산답사	송원영	대성동박물관 학예연구사	
6	10.29.	김해의 유교문화	김훈식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7	11.5.	김해왜성과 그 의미	나동욱	부산근대역사관장	
8	11.12.	이학규의 시문을 통해 본 김해의 옛 모습	김성진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9	11.19.	김해 제염업의 역사	유승훈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	
10	11.26.	김해의 지명에 대하여	민궁기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강의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